

승·대·극·회·30·주·년·기·념·공·연·및·제·51·회·가·을·정·기·공·연

# 안하고 네

1994년 9월 29일(木) ~

10월 1일(土) 오후 7시

장소 : 과학관 해방터

작 : 소포클레스

지도교수 : 이반

기획 : 소장호

연출 : 박원상

1921년 연홍회 소인극을 전신으로 하여  
숱한 국내외 화제작을  
무대에 올려온  
승실대학교 극예술연구회의  
30주년 기념공연 및 제51회 가을 정기공연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제1회 대학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저력을 바탕으로  
젊음의 순수함과 열정으로  
대학극의 발전을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극회장/홍석환



골짜기, 또 한 골을 지나서 이제는 큰 길이 나오겠지.....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는 인적, 거기에 더하는 철흙같은 어두움.  
어 길일까? 저 길일까?를 헤매이며 길 잃은 아이처럼 울먹이고 싶을 때, 아주 작은 나뭇가지의 꺾여진 모습이—그것이 확실한 흔적이 아닐 수도 있지만—조금만 더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먼저 걸어간 누군가의 흔적은 커다란 기쁨과 용기를 더해줍니다.  
저희 승대극회의 길다란 공연 연보를 보면 느낄 수 있는 뿌듯함과 짜릿함,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끊어질 수 없는 저희 승대극회인의 사람이 해를 거듭하고 거듭하며 더해지고 더해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극장 한 곁에서 움직이며, 흐느끼며, 목이 터져라 질러댔던 우리의 모습들.  
이제 거기에 남아있는 몸뚱아리들이 작은 몸짓을 조심스럽게 더할려고 합니다.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 어느 누구든지.  
함께 느끼고 싶음이 간절합니다.  
숨쉬고 행동하는 모든 생명들의 모습을 경배합니다.  
오늘,  
승대극회 30주년 기념 공연 및 51회 가을 정기공연을 여러분을 위해 무대를 만들어 갑니다.  
설레이는 이 맘. 아시는지요.....(?)

일신방직주식회사



총장/김성진

수학의 계절 10월에 하늘은 드높고, 오곡이 무르익는 달이고, 더위가 우리 대학이 생일을 맞이하는 달입니다. 평양의 옛터에서도 이곳 서울의 새로운 터전에서도 10월은 승실 온 가족이 축제를 갖는 달입니다.

우리 숭대극회는 1921년 평양에서 『절세 영웅 나폴레옹의 말로』라는 첫 공연에서 시작하여, 다시 1965년 서울 캠퍼스 재건과 함께 다시 공연을 시작한지도 어느덧 한 세대의 변환을 갖는 30주년 기념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실이 상도동에 자리 잡을 때만 해도 문화가 생소한 이 땅에 예술의 개척자로 나섰으며, 이제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이번 소포클레스의 정통 희랍극 '안티고네'는 승실의 꽃을 피우기에 기대할 만한 좋은 작품이라 믿습니다.

암담한 현실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끊임없는 창조의 정신과 진실된 예술의 흔이깃들인 숭대극회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 궁극적 물음에 대한 답을.....



지도교수/이 반

### 1. 국회가 재건될 때.

1965년 가을 학기에, 우리는 평양승실대학에서 1910년부터 시작된 국예술활동을 재개하기로 정하고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당시 작가 지망생인 나로하여금 국회를 재건하도록 설득한 것은 소설가 황석영이었다. 그가 작품을 쓰고 또 출연하고 내가 국회장을 맡고, 연출은 서라벌 예대 출신의 극작가 전진호씨가 해주었다.

영문과의 김덕천, 경영과의 김문배 등 남자들은 연기를 하겠다고 나서는데 여자 연기자 두 사람이 부족했다. 그래서 학보사 여기자 오이세와 안성희를 설득해 무대에 서게 했다.

기숙사에서 한 방을 쓴 학보사 편집국장 장수근씨, 후배 홍최희, 선배 이구형, 이순배씨 등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학생회비를 자율적으로 납부하던 때였으니까 학교나 학생회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던 시대였다. 등록금, 기숙사비, 시계 등이 날아갔다. 공연은 그런 대로 보아줄 수 있었다는 평이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서 연출료와 중국집 음식값이 외상으로 남아 있었다. 무대는 서울미대에서, 조명은 한양대 공대에서 와서 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대접하느라 중국집외상값이 꽤 많았다. 그런데 채플시간에 국회장을 앞으로 나오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기숙사 식당에서 공연하느라 문짝을 뜯었는데 그것때문에 벌을 주려나고 생각했는데 난데없이 고병간 학장님의 '모범적인 학생활동'이라고 표창장과

금일봉을 주지 않는가? 빚과 연출료를 지불하고도 얼마가 남을 정도의 큰 상금이었다.

그리고 29년이 흐르고 국회 정기공연이 50회가 되는 금년에 나는 이 학교로 다시와 국회지도교수가 되었다.

### 2. 후배 국회의원들에게.

8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과 대학생들은 인간의 삶의 조건을 결정짓는 체제에 대하여 발언하고 이상을 제시하는데 온갖 정열을 쏟았다. 그것은 젊은이로서의 당연한 관심이기도 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나는 젊은 이들의 관심이 보다 심원하고 궁극적인데로 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존재, 실재, 질서, 정의같은 용어는 인간이 인간인 영원히 물음을 물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이 고전인 소포클레스의 비극 '안티고네'를 숭대극회 30주년 기념 공연작품으로 선택해 준 것을 고맙게 여긴다. 이 작품은 어두운 시대에 많이 공연되었는데, 그 이유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안티고네'에 현실적 요소가 많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곳에 안주하고 있는 작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안티고네'라는 광맥에는 궁극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이 숨겨져 있다. 그것을 찾아내어 표현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 1.

"지혜야 말로 으뜸가는 행복, 신들께 향한 공경은 굳게 지켜야 한다. 교만한 자들의 큰 소리는 언제나 큰 천벌을 받고, 늙어서나 지혜를 배우게 된다." 이 말은 코러스들이 마지막으로 내뱉는 걸코 평범하지만은 않은 합창이다.

## 2.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희랍의 비극을 살피면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가?

계속 이어지는 의문이었다. 혹시 때가 되어 어떤 맛볼 수 있는 한가위 송편 같은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 송편을 소화시킬 위장의 힘의 부족을 느낀다.

## 3.

국가의 정의를 내세우며 일체의 자연과 신의 정의를 무시하는 크레온은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온 남성 중심 사회의 대표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역사를 전쟁으로 오염시키고 인간을 파국으로 몰아 넣었다. 그에 비하여 안티고네는 자연과 산과 보이지 않는 불문율에 복종하는 섬세한 여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남성이 만든 이데올로기의 갈등의 역사에는 모성, 신비함, 섬세함 등의 여성적 정신으로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 입장에서 안티고네, 이스메네, 코러스

장, 그리고 크레온에게 결정적인 충고를 하는 예언자를 무녀 헬레드라로 등장시켜 여성의 입장을 부각 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그것도 어디까지나 고전의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였다.

## 4.

"연극의 허구(fiction)란, 그곳에 아무 것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몸짓을 해서, 같은 질의 것을 관객에게 느끼게 해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연극과 종교적 의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적 의식—의례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있다'고 믿은 인간의 에너지라고 말해도 좋겠지요. 그러나 연극은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있다는 것처럼 몸짓하는 놀이, 즉 일종의 패러디로서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요컨대, 연극이 의식성이라 한다면, 종교는 역사적으로 무의식입니다."

이와 같이 생각해 가면, 그리스 비극을 연기하는 것은 현대의 배우에게는 최대의 광선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광선이 되고 추상으로 되는 것이 현대에 있어서의 그리스 비극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배우가 그 허구적인 것을 찾아서, 마침내 그리스 비극을 해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낡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도리어 현대가 일상성에 덮혀져버

렸음으로 해서, 광선과 같은 고도의 놀이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연극이 현실인식이나 이미 알고 있는 감각의 표현으로서 행해진다고 하면 베케트가 상정한 상황이나 그 속에서의 행위는 결코 먼 것이라고 할 것도 아니며, 근대 리얼리즘이 그려낸 내면의 세계는 더욱 친근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놀이로서도 즐거울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연기한다고 하는 충동, 어떤 공간속에서 몸을 보이고, 말을 하고, 스스로를 허구적으로 느끼고 싶다고 하는 욕망은, 미지의 것 또는 잃어버렸던 것을 만나면 만날 수록 더욱 강렬해지기도 하는 법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무대의 패감이라고 하는 역전된 느낌일 것입니다. 배우의 몸과 마음속에 이러한 욕망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현대에 있어서 그 리스 비극같은 고전의 존재의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고전의 존재의미 : 「스즈키 연극론」중에서)

## 5.

헤겔은 「안티고네(Antigone)」를 그리이스 비극의 이상적인 예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이극에서 우리가 윤리적 긴장의 최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크레온과 안티고네는 둘다 그들이 받아들이

는 윤리적 충절이 정당하다는 점에서 보면 옳다. 그러나 그들 각자의 윤리적 원리가 각각의 충절에 '절대적' 요구를 발휘한다고 가정한다면 옳지 않은 것이다. 그 요구들이 부분적일 뿐이며, 그 파국이 부분을 전체로 이해한 인간적 실수를 통해 일어난 것을 깨닫게 되면, 비로소 和解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헤겔에 의해 상상된 그 화해가 반드시 주인공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이나 청중의 마음 속에 일어난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좋다. 안티고네는 한정된 理想을 절대적 理想으로 오해했다는 사실에 대한 각성 없이 죽어간다는 것을 헤아리지 않으면 안된다. — 문예비평가 (클리언스 브룩스) 중에서 —

## 6.

소포클레스의 비극은 상업자본에 의한 때문에 커다란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페르시아인에 대한 그리이스인의 전성시대를 반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소포클레스의 작품에는 그리이스 귀족계급의 권위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그러나 소포클레스도 피할 수 없는 것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인간의 의지를 주로 다루고 있다. 인간의 성격은 이렇게 운명의 도구로서 등장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는데 이는 그의 작품 「오이디푸스 왕」과 「안티고네」에 잘 드러나 있다.) 그의

작품 속에서는 전래의 관습과 국가의 권위 사이의 갈등이 중심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소포클레스는 사회적 모순의 화해, 즉 상업 부르조아지와 귀족 계급의 타협을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소포클레스의 비극은 그리스의 모범적 형식으로 인정되었다. 그는 대단원을 최초로 삽입한 극작가이기도 했다. 그는 그에 앞섰던 에스퀼로스의 비극에 특징적으로 나타나 있는 행동의 급속성을 완만하게 늦추었는데, 소포클레스의 경우, 행동은 파국을 향해 한걸음씩 접근해 가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다시 대단원으로 이어졌고, 제3의 배우의 삽입이 바로 이것을 도와주었다.

합창대는 연극이 끝날 때까지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는 데, 그 이유는 합창대가 연극에 끊임없이 참여하기 때문이었다. 합창대는 비극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혀줌으로써 극작가에게 도움을 준다. 왜냐하면 주인공의 정신적 체험을 드러내어 주기도 하고, 지배적인 도덕의 관점에서 주인공들의 행위를 평가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 희곡의 본질과 역사(소련 콤 아카데미 문학부 역음) 중에서—

## 7.

전설시대의 희랍의 흥미있는 인물이나 고상한 행위의 주인공은 대부분 여성이다. 알케스티스가 부부애의 표본인 것과 같이, 안티

고네는 효성과 우애의 혁혁한 표본이었다. 그녀는 오이디푸스와 이오카스테의 딸이었는데, 이一家는 가혹한 운명의 희생물이 되어 멸망하였던 것이다. 오이디푸스는 발광하여 자기의 눈을 잡아빼고, 천벌의 대상으로서 모든 사람의 공포의 대상이 되고 버림을 받아, 그가 왕이었던 테바이로부터 추방당하였다. 그의 딸인 안티고네만이 그의 방황의 수행자가 되어 그가 죽기까지 그의 곁에 있다가 테바이로 돌아왔다.

그녀의 오빠인 에테오클레스와 폴류네이케스는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리어 1년씩 교대로 왕이 되자고 합의하였다. 최초의 해는 에테오클레스가 지배하기로 하였는데, 그는 기한이 다 되어도 나라를 아무에게 양도하기를 거부하였다. 폴류네이케스는 아르고스의 왕 아드라스토스에게로 도망하였는데, 후자는 그를 자기의 딸과 결혼시키고, 군대를 주어 왕위를 빼앗도록 하였다.

전쟁 초기에 에테오클레스는 예언자 테이레시아스에게 결과가 어찌될 것인지 문의했다. 테이레시아스는 짚었을 때 우연히 아테나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일이 있었다. 아테나는 노하여 그의 시력을 박탈하였다. 그러나 후에는 가엾이 여겨 그에게 그 보상으로 미래사를 아는 능력을 부여하였다. 에테오클레스의 문의를 받자 그는 만약 크레온의 아들 메노이케우스가 자진하여 희생물이 된

다면, 테바이스가 승리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 영웅적인 청년은 이 답변을 듣자 최초의 회전에서 그의 생명을 내던졌다.

포위전은 장기간 계속되었으나, 승패가 결정되지 않았다. 마침내 양군은 에테오클레스와 폴류네이케스가 일기전(一騎戰)으로 승패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들은 싸워서 둘이 다 상대편의 손에 의하여 쓰러졌다. 군대들은 다시 전투를 시작하였다. 마침내 침입자들이 패배하여 죽은 자를 묻지도 않고 도망하였다. 전사한 에테오클레스와 폴류네이케스의 속부인 크레온이 왕이 되어, 에테오클레스는 정중히 매장케 하였으나, 폴류네이케스의 시체는 그가 전사한 곳에 그대로 내버려 두게 하고, 그 매장을 금하여, 위반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리라고 포고하였다.

폴류네이케스의 누이인 안티고네는 오빠의 시체를 개나 독수리의 밥이 되게하고, 죽은 자의 안식에 필요한 장례도 거행치 못하게 한 몰인정한 포고를 듣고 분개하였다. 애정이 깊으나 겁이 많은 동생이 말렸으나, 듣지 않고 아무도 거들어 주는 사람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안티고네는 위험을 무릅쓰고 혼자서 시체를 매장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녀는 현장에서 발견되었다. 그래서 크레온은 국가의 업

숙한 포고를 고의로 위반하였다하여, 안티고네를 생매장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녀의 애인이요, 크레온의 아들인 하이몬은, 그녀의 운명을 막을 길이 없고, 또 자기 혼자 살아남는 것도 원치 않아 자결하였다. — 안티고네(고대신화) 중에서—

## 8.

- 소포클레스(Sophocles, 495–406 B.C)
- 에스킬러스는 두 명의 배우로 작품을 처리하였지만, 그는 여기에 또 한 명의 배우를 추가했으며, 합창단의 기능을 대폭 감소하고 대사를 좀 더 많이 삽입하였다.

- 장치도 이용하기 시작했으며 장치에 착색도 시도하였다.

- 고테(Goethe)는 그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소포클레스 이후에 이 사람처럼 나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는 순수하고 고귀하고 위대하며 또한 명랑하다. 그의 작품이 조금밖에 남지 않은 것은 유감이지만, 그러나 이 조금밖에 없는 작품일지라도 이것을 평가하면 할수록 좋아진다. 재능이 있는 인간이라면 그의 작품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실이 끊긴다. 좌르르, 또 하나의 실이 끊겼다.  
어떤 것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아무런 흔적을 두지 않으며 그렇게 사라졌지만 주위엔 누구것인가 모르는 몸체의 일부가 가느다란 빛줄을 흘리며 나뒹굴고 있다. 나와 함께 있던 다른 생명체들이 모두 사라졌다. 나는 신생인이다. 나는 어떤 자의 힘인지는 모르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이끌리어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움직임은 비슷하지만 거기는 좀더 어두웠다. “어두움”

눈앞의 어두움에 익숙해질 무렵, 난, 나와는 다른 신생인을 보았다. 그는 그리 말을 하지 않는 편이었다. 그리고 그리 아름다운 선으로 구성되어 있지도 않았다. 움직임에 있어서도 다른 이와 그리 차이나지도 않았다. 그가 때때로 감히 우러를수 없는 높은 곳을 한동안 응시하는 것 외에는 그는 조용한 신생인일 뿐이었다. 무연히 난 그의 눈을 볼 수 있었다. 태어나게 되면서 잠재 의식 교육으로 나는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전방, 후방, 측방이며 이 시야에서 벗어나 질 말 것을, 즉 고개를 들어 ‘하늘’이라고 불리는 높은 공간을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법”이라는 명령으로 주지받아 왔다. 또한 나의 움직임을 만들고 있는 가느다란 끈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대단히 고귀하며 엄격한 것 이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 그것을 움직이게 해서도 안되며, 그것을 우리의 의지로 끊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교육받았다. 이것을 진리라고 했다.

“진리”

번쩍임. 그것이다. 그의 눈속에서 활개치며 무섭게 빛나는 무엇인가가 나를 놀라게 만들었다. 태어나서 한번도 보지 못해본 그 광채. 그가 다른이와 다르게 보였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서로 주시하지 않으며 서로에게 무관심해야 하는 우리의 체질은 그의 그러한 빛을 무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그러나 내 주위의 다른이들이 나와 같이 그의 눈빛을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와 함께있는 우리들의 움직임은 사뭇 다른 집단의 그것과는 무언가가 달랐고, 은연중 그는 우리에게 이상한 힘을 부여하는 근원이 되었다. “자연”

‘우우우웅—, 뚝’ 혼란이 일어났다. 누군가 법을 어겼다. 자신의 동력줄을 끊어버렸다. 수억세기를 지나오며 한번도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감히 자신의 생명줄을 끊어버리다니.

난 보았다. 칙칙하고 습기찬 생명없는 이 언덕 위에 고스란히 뉘여져 있는 그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생명줄은 지상과 하늘사이에서 끊겨져 텅빈 공간에는 가느다란 빛줄기만이 반짝거리고 있었다.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잘 모른다. 그리고 ‘왜’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 단지 그의 눈빛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느끼게 해주었다는 것, 형체를 알 수 없는, 뭐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일 뿐이다. “자유(?)”



소장호 (전산 89)

허겁지겁 보낸 하루가 왜이리 짧게 만 느껴지는 것일까? 무얼 찾아 해매이며 이리도 고달파 하였던 것일까? 순수, 정열, 아니 단순한 기계에 불과한 지도 모른다. 오늘도 이렇게 보내야만 했다. 아무도 우리의 불운을 탓하지는 않는다.

설령 그렇다 하여도 이것은 당당한 권리이며 자신감인 것이다. 웬지 30주년이란 긴 세월이 내 어깨를 자꾸만 짓 누른다. 어쩌면 책임인지도 모른다. 30년이란 모른다고 얼버무리기엔 너무나 도도히 흐른 세월이었고 작품 하나하나에 깃든 선배님들의 열정과 예술혼이 함성을 지르는 듯 하다.

우린 이렇게 30년을 이어왔고 앞으로도 영원할 것입니다. 지금껏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승대 극회를 사랑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대감독/  
황명식 (전기 88)무대장치/  
양현준 (법 90)무대미술/  
이정원 (국문 93)진행 I /  
송숙희 (영문 92)진행 II /  
임가영 (물리 94)홍보/  
류성환 (건축 93)조명/  
양명호 (법 93)효과/  
정대교 (불문 94)의상/  
김현정



연출·크레온/박원상(독문 86)

우리에게 실험이 아닌 것이 무엇일까?

그를 흉내내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 가을 황금 들녘의 허수아비는  
풍요로움이지만  
그리고 행복이지만  
아무래도 난 허수아비다.

나에게 실험이 아닌 것은 무얼까?

.....

다 지난 오늘, 집에 돌아와 꾸역 꾸역  
밥을 씹으며 생각한다.

우리에게 실험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 1994년 9월 17일 금요일 저녁에 —

안티고네/헬레드라  
류은숙(산공 92)안티고네/헬레드라  
손미라(사사 93)하이몬/  
홍석환(기계 91)파수병/  
장빈(정통 94)사자  
박시현(법 94)에우류디카/  
남은정(철학 91)이스메네/  
류민주(국문 94)



코러스 장/  
김소희 (독문 91)



코러스 1/  
한석윤 (기계 91)



코러스 2/  
정석용 (경영 90)



코러스 3/  
김상겸 (기계 91)



코러스 4/  
서수경 (정통 94)



코러스 5/  
임혜진 (중문 94)



코러스 6/  
지현주 (중문 94)

소포클레스는 아이스클로스와 달라서 三部作적인 구성을 물리쳤지만, 보이오티아 지방의 옛 도시인 테바이의 랍다코스 王家에서 일어난 一連의 비극적인 전설은 그로 하여금 흡사 三部作 같은 작품을 지어 내게 했다.

작품이 썩어진 순서로 보아서는 거꾸로 됐지만, 내용으로는 「오이디푸스王」,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에 이어, 「안티고네」에서 비극은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다.

모르고 저지른 일로 하여 저주 받은 운명을 뒤늦게 깨닫고서, 스스로 눈을 찌르고 나라 밖으로 추방 되길 바라는 것으로 끝맺은 「오이디푸스王」은,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로 翼域을 정처없이 해매다가, 흐르는 세월에 몸은 이미 늙어, 아테나이의 변두리인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로서 한 많은 세상을 등진 다음, 그의 말끝 안티고네는 동생인 이스메네를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 왔지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절경 자기의 죽음 밖에 없었다.

조국에 활을 당겼다가 형제의 맞싸움으로 아우와 함께 죽은 오빠 폴류네이케스를 외숙인 왕의 사형으로 이르는 준엄한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떳떳이 장

례를 치른 안티고네는 왕에게 의연하게 항거한다. 그는 아직 나이도 젊은 데다가 역경에서 자라난 강한 의지와, 같은 운명의 학대에 시달린 동기간에 대한 애착과 그리고 왕녀로서의 체통으로 일관하는 도도한 기질을 기진 여자였다. 이에 대해서 그의 외숙크레온은 어디까지나 형식주의자로서, 무엇보다도 법의 존엄성을 앞세우는 성격과 위치에 있는 독재자였다. 물론 그의 주장이 옳기는 하지만, 밭작 화를 내고, 법의 존엄성은 알아도 인간의 존귀함에는 아예 눈가림을 한 사나이였다.

이런 두 사람 사이에서 피할 수 없이 일어나는 일 이란, 날카로운 대립, 그리고 드디어는 크레온의 사형 선고에 따른 안티고네가 스스로 택한 죽음의 길.

작자는 안티고네의 이런 기질과 대조적으로, 그의 동생 이스메네의 성격을 창작적으로 구상하여, 소극적이고 순종적인 인물로 설정해 놓았다. 이것은 「엘렉트라」에서 엘렉트라와 그 동생 크류소테미스와의 성격적 대조만큼이나 뚜렷하다. 아마 소포클레스는 이렇듯 성격적인 대조를 통해서 한편의 기질을 두드러지게 浮刻시키고 싶었던 것 같다.

승대극회 30주년 기념공연 및  
제 51 회 가을 정기공연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후배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승 실대학과 승대극회 동문회 일동**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921년 6.13	연희회소연극 "침례당용·나풀마을의 말로" "대미국 노예의 탐"		
	1923년 7.7, 21	전단극 "우리의 행진" "꽃배불" "신 년 후" "미래인간" 범국제연극 주관		
	1923년 7.28, 29	"스페인극" 고학성후원회 주관		
1	1965년 11.	"제공으로 돌아온다"	이 반	전진호 부사장작
2	1968년 10.28	"Out Town" by Thom Wilder		이태수
3	1969년 10.10	"의사들" 이오네스코작		이태주
4	1969년 10.28, 29	"The Miracle Worker" by William Gibson	고봉민	
5	1970년 5.15	"生产经营" by John Millington Synge		한영재
6	1970년 10.28, 29	"승부의 終末" 시우센 베레트작		김병기
7	1971년 5.26, 27, 28, 31 6.1, 2	"The Rising of the Moon" by Lady Gregory	정충희	
8	1971년 10.25, 26, 27, 28, 29	"진남목 심화" 풍조정작 "남해에서의 향토" 안도 세율작 "황금단지"(한국극) 푸라우더스작 "고도를 기다려라" 시우센 베레트작	주성서 한영재 김근례 차현재	
9	1972년 5.21, 22, 23	"생일여행" H. 콘티작		한영재
10	1973년 15.21, 22, 23	"미사시와의 협奏" F. 위엔마리작	고봉민	
11	1973년 10.25, 26, 27	"왕" H. 콘티작 "기도" (소극장) F. 아리에라작	김병기	차현재
12	1974년 5. 25, 26, 28, 30	"정의의 사랑을"(전5막) A. 바이올		장충희
13	1975년 6.9, 10, 12, 13	"죽음터의 신화" "도스토옙스끼라는 이름의 거울이"	김홍수	안홍순
14	1975년 10.28, 30, 31	"미안과 함께해" Max Frisch	김기범	안홍순
15	1976년 6.1, 2, 3	"안나부" 장 클로드 빈 베렐리작	김기범	김복남
16	1976년 6.25, 26, 27, 28	"왕" 장 클로드 빈 베렐리작		김기범
17	1977년 6.15, 16, 17, 18	"EQUUS" 피터 레거작	백정식	김복남
18	1977년 10.10, 11, 12, 13	"EQUUS" 피터 레거작	방영희	김병덕
19	1978년 6.5, 6	"COUNTER POINT" By Olov Hartmann	방영희	김병덕
20	1978년 10.24	"EQUUS" (대학연극 연극제 평가) 피터 레거작	민승기	김병덕
21	1979년 6.18, 19	"한강 279" 김병덕작	정세호	이재국
22	1979년 9.29, 10.2	"초분" 오태선작	이강임	황정순
23	1980년 11.5, 6	"기나, 끼, 생활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 가?" 보리바이 페라프작	엄세영	비상근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24	1981년 6.12, 13	"노부인의 밤문화" F. 위엔마리작	이종규	황정순
25	1981년 11.12, 13, 14	"달맞이꽃" 김병우작	전석근	황정순
26	1982년 5.12, 13	"스탈리나" A. 카페트	김태웅	지숙
27	1982년 10.7, 8	"피도우 페스" M. 그라스모비작	전희식	황정순
28	1983년 6.20, 21	"마사시파비의 결혼" F. 위엔마리작	전희식	김병덕
29	1983년 10.7, 8	"트루비" John Bowne	이원우	조정열
30	1984년 5.24, 25, 26	"도가니" (Tob crucible) A. Miller	이종규	오세환 임세임
31	1984년 10.11, 12, 13	"벌진즈" John Stoltenberg	이세훈	이종섭
32	1985년 5.9, 10, 11	"빈센트" Maxim Gorky	김상현	이종섭
33	1985년 11.21, 22, 23	"진남목 주디풀의 신부님" 조안나 · 골든 · 스카	최승민	김기범
34	1986년 6.4, 5, 6	"에우수스" EQUUS" 피터 레거작	최상우	최승민
35	1986년 9.11, 12, 13	"코발트" F. 미란데스코작	민상준	김기범
36	1987년 6.3, 4, 5	"한여울밤의 꿈" W. Shakespeare	권형진	오경발 이준석
37	1987년 9.10, 11, 12, 13	"오늘" A. Camaroff	오정민	황정순
38	1988년 6.2, 3, 4	"세인은 꽃과 세인은 깊게" 이어령작	이충일	조정열
39	1988년 10.6, 7, 8	"4447, 꽃과 꽃!" Dana Folz	관대수	송근호
40	1989년 5.25, 26, 27	"꽃나" 윤소영작	관수령	한진후
41	1989년 10.10, 11, 12, 13	"대성당의 신인" T.S. Eliot	오정민	이 반
42	1990년 5.24, 25, 26	"안티고네" 장 애누이작	관대수	이준석
43	1990년 8.30, 9.1, 2	"한씨연대기" 풍석임작	전승민	김병덕
44	1991년 5.30, 31, 6.1	"생일파티" H. 콘티작	남재우	관승희
45	1991년 9.5, 6, 7	"남재" 이상작	양현준	권형진
46	1992년 3.19, 20, 21	"우린 나같은 물었다" 김경화	김경화	홍은정
47	1992년 9.17, 18, 19	"군관의 예수" 김자연작	홍서준	송근호
48	1993년 5.20, 21, 22	"세일즈맨의 죽음" A. Miller	황병식	박원상
49	1993년 10.21, 22, 23	"택시, 택시" 김강수작	소정호	박원상
50	1994년 5.26, 27, 28	"굿타이" 남재민작	정식윤	소정호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	1975년 3.10, 11, 12	"안나와 둘" W. Anning		김홍수
2	1976년 10.26, 30, 31	"보석과 여인" 이강백작		김복남
3	1977년 3.16, 17, 18	"출발" 윤대상작	전경호	안홍순
4	1979년 3.29, 30	"생" 미강백작	한·월	정세호
5	1981년 3.30, 31	"ARIA DA CAPO"	이영환	오세환
6	1982년 3. 24, 25	"황금날 죄는 맞나귀 죄" 김용락작	최상일	이용섭
7	1983년 4.16	"찰리코비디" 피터 레거작	전희식	홍미식
8	1984년 3.8, 9	"개인의 소공간" N. Holland	차세훈	김인보
9	1985년 7.20	"ARIA DA CAPO" E.S. V. Miller	이영민	하승민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0	1986년 3.17, 18, 19	"인형의 집" 벤리 팀센	이감영	김정은 위성신
11	1987년 3.12, 13, 14	"디버운 손" JP 사르트로	백용현	박정근
12	1988년 3.24, 25, 26	"불가봉가" 이현희	원승민	황금실
13	1989년 3.23, 24, 25	"흑인수녀를 위한 진혼곡" A. Camus	홍미래	박정근
14	1990년 3.8, 9, 10	"우울증, 혼자" Boch Stru	이영민	박혜숙 한상준 백묘자
15	1991년 3.7, 8, 9	"노크노크" 줄스파이퍼	정한용	이법준
16	1992년 5.28, 29, 30	"광하고 물리하고" 이근성이	김상경	양현준
17	1993년 3.11, 12, 13	"페우4" Georg Kaiser	소장호	박원상
18	1994년 3.10, 11, 12	"여인왕자" 영락위버리	이명상	홍석환

**그린커플**

■ 그린커플 ■

• 경로

TEL. 816-5196

**지희네 집**

■ 지희네 집 ■

• 경로

TEL. 816-4694

**Hof & Restaurant  
하이랜드**

High land High Land

2층

TEL. 816-9835

**백마당구장**

• 경로

TEL. 812-4360

**자매분식**

(주) 자매분식

최신의 시설로  
최고의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TEL. 816-9835

정통 중국요리 전문점  
(CHINESE RESTAURANT)

2층

• 경로

연래춘

TEL. 812-9108

새로운 분위기로  
여러분을 맞습니다.  
숭실대학교 앞

온누리에 맑고 깨끗하게 퍼져라



고운 모래로 좋은 유리를 만듭니다.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을, 희미한 곳에 또렷함을,  
막힌 곳에 시야를 열어주는 유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세상을 밝고 아름답고 이롭게 ….

한국유리는 더 좋은 유리를 통해 그 정신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밝고 아름답고 이롭게 —



HAN GLAS